

243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18. 1. 8



—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전략

이혜숙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발행인 : 서왕진

편집인 : 정희윤

발행처 :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

※ 정책리포트는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서울지역 자유학기제 운영실태와 활성화방안:
진로탐색활동 중심으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전략

	요약	3
I.	진로탐색활동의 필요성	4
II.	서울시 자유학기제 추진 현황	6
III.	서울시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	11
IV.	서울시의 자유학기제 지원 전략	17

이혜숙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65
lhsook1@si.re.kr

자유학기제는 학생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발견하고 나아가 창의적인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고, 행복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획에서 도입되었다. 2013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6년 모든 중학교로 확대하여 전면적으로 추진되었다. 자유학기제는 지역사회의 협력이 함께해야 그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공공기관의 자유학기제 관련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서울시의 지원전략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유학기활동은 지역사회의 역할이 수반될 때 원활한 진행이 가능해

자유학기 활동 중 진로탐색활동은 다양한 진로탐색과 체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지역 자원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 단위의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설치를 비롯해 진로교육법 제정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다양한 공공·민간 주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제도의 사회적 공감대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로체험처 제공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했지만, 공공기관의 자유학기제 대응실태는 미흡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청소년 시설은 100%(30개)로 운영 중이지만 산하기관 및 투자·출연 기관에서 자유학기제를 지원하는 비율(42.9%)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기관장의 관심도나 자유학기제 관련 회의 개최 정도에 견줘 실제 예산 배정이나 상시인력 지원은 적었다. 지역사회 참여자들은 진로체험처 기관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현 구조로는 참여를 확대하기가 어렵고 기관장이나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투입할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요 한계로 파악하였다.

자유학기제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

아이들의 꿈과 끼를 탐색하며 전인적 성장을 돕는 일은 교육청만의 업무는 아니며,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 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가칭)서울시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진로체험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담당자 교육과 연수를 시행하여 담당 인력의 전문성 증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질을 위한 진로체험처 관리와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나가야 한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I. 진로탐색활동의 필요성

입시 중심 교육이 더는 가능하지 않은 시대로 변화

학업성취도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이지만,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평균에도 미달

- 국제적 학업성취수준은 높지만, 학업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 등 정의적 특성은 OECD 국가 평균 이하(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5)¹⁾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꼴찌²⁾
 - OECD 국가 평균을 100점으로 표준화할 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
 - 입시교육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의 행복은 성인 이후의 과업으로 미뤄져 사교육비 과다 지출, 높은 청소년 자살률 등의 문제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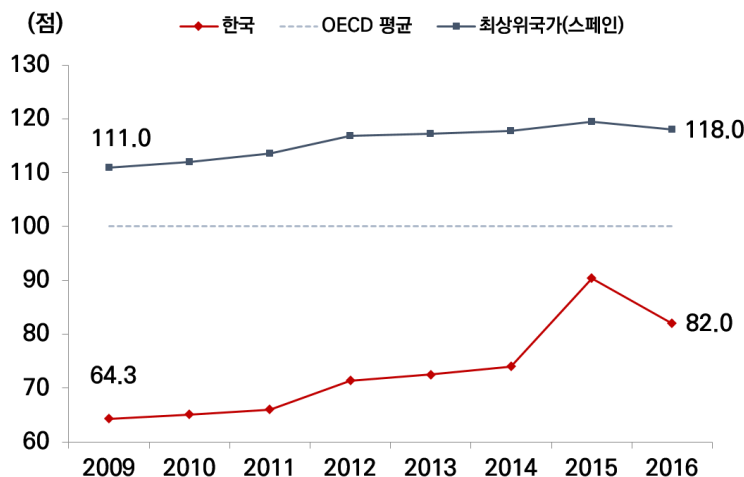


그림 1. 주관적 행복지수 추이

자료: 한국방정환재단, 2016, 「2016 제8차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1) '정의적 특성'은 자기효능감, 도구적 동기, 즐거움, 흥미로 구성

2) '주관적 행복' 지수는 주관적 건강, 학교생활 만족, 삶의 만족, 소속감, 어울림, 외로움 등의 지표로 구성

-
- 창의성, 비판적 사고, 협력적 문제해결능력 등 미래 핵심역량을 제고하며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 교육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요구가 증대

획일적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필요

- 아동·청소년의 꿈·끼 발굴과 양성은 진로교육체계에 달려
- 중학생의 27.0%가 희망직업이 없다고 응답(학교 진로교육실태조사, 2015)
- 학생의 소질과 적성 구현은 개인 삶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인적 자본의 적합성과 효율성 도모에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조기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제기(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2016)

II. 서울시 자유학기제 추진 현황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도입으로 교육정책의 변화 시도

자유학기제는 학생 스스로 꿈과 끼를 탐색하고 미래역량을 강화하는 제도로 2016년에 도입³⁾

- 자유학기제는 ‘교과 수업의 혁신’과 ‘자유학기 활동’으로 운영
 - ‘교과 수업의 혁신’은 학생 참여형 교수·학습과 과정 중심의 평가를 적용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
 - ‘자유학기 활동’은 ‘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활동 유형으로 구성해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 학교 여건 등을 반영하여 균형 있게 편성
 - 대부분 오후 시간대와 중간·기말고사 기간을 활용하여 전일제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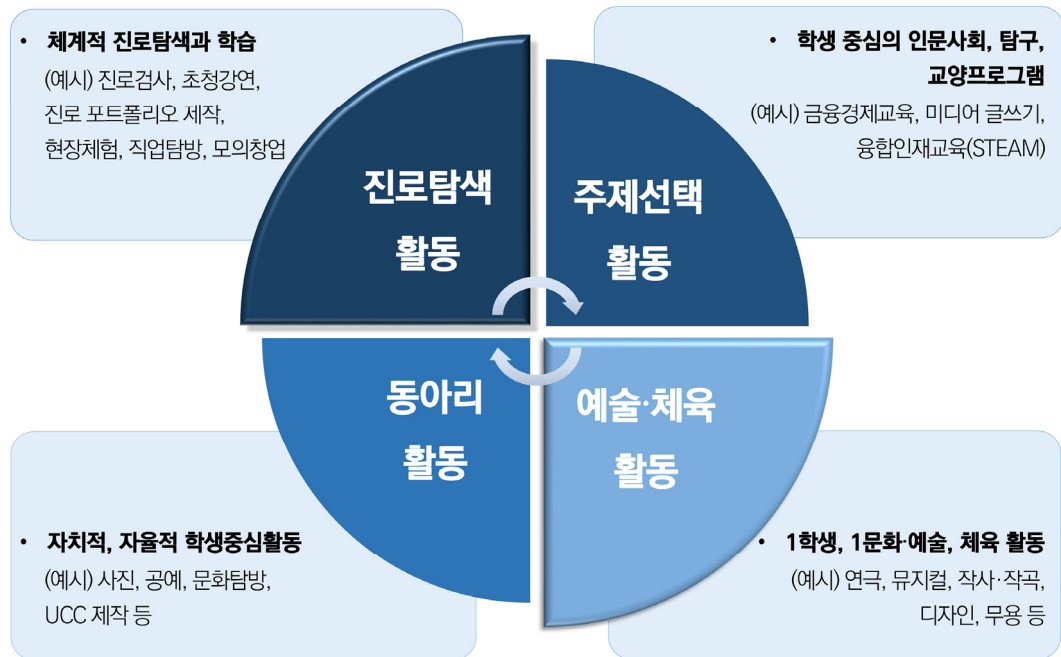


그림 2. 자유학기 활동 운영 예시

자료: 교육부, 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안)」 재구성

3)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자유학기 활동’ 운영으로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확대

자유학기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선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가 절실

- 자유학기제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의 기회가 열려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자유학기제’를 선도적으로 시행⁴⁾
 - 국정과제 이전부터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도입하여 운영 모델 제시
 - 1학년 1학기과 2학기 중 한 학기를 탐색(연계)학기로 하는 연계교육과정 운영
 - ‘중2 혁신 자유학년제’, ‘중3 맞춤형 자유학년제’의 자율 운영과 더불어 고교자유학년제인 ‘오디세이학교’ 운영으로 연계·확산 모델을 마련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진로체험활동 시행

- 현장체험, 직업실무체험(모의일터 직업체험) 등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으로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탐색⁵⁾
- 학교 안에서는 다양한 직업을 탐색·체험하기에 역부족이므로 학교 밖 연계 필요
 - 학생이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직업 이해는 현장체험이나 실습, 현장 일터 탐방 등 생생한 경험으로 가능
 - 학생이 지역사회 일상에서 직업 세계를 접함으로써 직업 의미나 직업적 애로사항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체계적·지속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

4) 중학교 1학년 과정 중 ‘1학기 탐색학기+2학기 집중학기’ 또는 ‘1학기 집중학기+2학기 연계학기’를 시행

5) 교육부는 진로체험 유형을 현장직업체험형, 직업실무체험형, 현장견학형, 학과체험형, 진로캠프형, 강연형·대화형의 6가지로 구분

자유학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는 구축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체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

- 단위학교 중심의 수평적·수직적 지원체계 구축과 운영
 - 자유학기제 추진체계는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단위학교로 연결
 - 자유학기제 지원 플랫폼으로 교육부 산하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3곳을 운영⁶⁾
 - 서울시도 학교를 중심으로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청(25개), 교육지원청(11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25개) 등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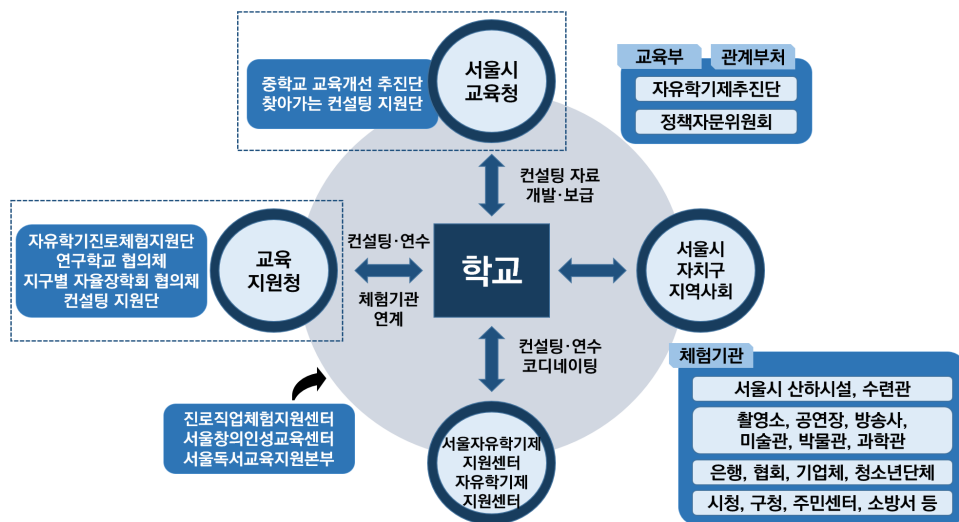


그림 3. 서울시 체험활동 지원체계

자료: 서울시교육청, 2015, 「2015 서울형자유학기제 운영매뉴얼」

6) 자유학기제 지원특임센터(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유학기지원센터(한국과학창의재단)

자치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체험처 발굴과 관리, 주요 매개자 역할을 수행

- 서울시에는 현재 25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운영 중
 - 11개 교육지원청과 25개 자치구가 관할 지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공동 관리·운영
 - 일반적으로 자치구와 교육청이 1억 원을 대응 투자하여 총 2억 원을 지원
 - 대부분 청소년기관(단체)에서 위탁 운영, 4개 구(성동, 양천, 종로, 금천)만 자치구청이 직영
 - 청진기(청소년진로체험의 기적) 현장체험학습, 직업실무체험, 진로박람회, 진로특강,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 운영



그림 4. 서울시 진로직업체험센터 개소 현황(개소 연월)

공공부문 중심의 체험처 확산 노력에도 다양한 체험처 발굴과 지속 운영이 쉽지 않아

- 진로체험 교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교육인증제를 운영
 - 서울시교육청은 110개 기관을 ‘서울학생배움터’로 지정(2016.10.18. 기준)
 - 교육지원청 자체 사업으로 ‘특성화고 연계 직업체험 강화사업’ 운영⁷⁾
- 서울시는 자유학기제 체험처 발굴과 확산을 위해 협력
 - 서울시 산하기관이 보유한 체험프로그램 정보를 수집·안내하는 등 적극 협력
 - 서울시 산하기관 우수 현장학습프로그램 선정과 포상 시행
 - 자유학기제를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정책으로 현장체험학습 활동 때 학생 수송을 지원하는 ‘현장체험버스’를 서부교육청에서 시범 운영(2016년 5~12월)
 - 서울시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 중 하나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진로교육 지원으로 자유학기제를 간접 지원
- 체험처 발굴 직종의 쏠림 현상이 발생
 -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프로그램 현황’에서 서울 지역 집계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 진로직업체험센터 등을 포함하여 45개 기관이 669개 프로그램 운영(2016.5.19. 기준)⁸⁾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체험처 발굴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상반기 기준 NCS 직종별 총 1,961곳의 일터 발굴
 - 이 중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일터(314곳)와 교육·자연·사회과학 관련 일터(309곳)가 다수⁹⁾

7)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74개교를 개방하여 학과 및 직업교육과정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10개 특성화고 대상으로 상설 진로체험관이나 직업 교육 관련 페스티벌 부스를 운영

8) 서울시, 2016.8, 「서울시 자유학기제 연계 추진계획 보도자료」

9) 서울시교육청·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Ⅲ. 서울시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

서울시 공공기관 주도의 체험처는 양적으로도 불충분

설문조사 결과 49개 기관이 273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年 17만여 명 이용'

- 105개 응답 기관 중 49개 기관이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 진로체험 프로그램 중 강연·대화형(26.4%), 직업실무체험형(20.9%), 현장직업체험형(17.2%)이 상대적으로 제공 빈도 높아
- 학교급으로는 중학생의 참여가 많고, 학교 단위의 단체 참여가 다수
- 서울시 공공기관은 기관당 평균 15.1회 운영, 회당 이용 인원은 약 106명
- 1회 참가비용은 평균 2,225원이며, 대체로 무료이거나 재료비 정도만 본인 부담

표 1. 기관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 현황

(단위: 개, %)

구 분	산하기관 및 투자·출연기관	진로직업체험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도 서 관	계
현장직업체험형	6(35.3)	27(12.5)	14(35.0)	47(17.2)
직업실무체험형	1(5.9)	56(25.9)	0(0.0)	57(20.9)
현장견학형	3(17.6)	3(1.4)	3(7.5)	9(3.3)
학과체험형	1(5.9)	13(6.0)	0(0.0)	14(5.1)
진로캠프형	1(5.9)	36(16.7)	2(5.0)	39(14.3)
강연형·대화형	5(29.4)	47(21.8)	20(50.0)	72(26.4)
기타	0(0.0)	34(15.7)	1(2.5)	35(12.8)
계	17(100.0)	216(100.0)	40(100.0)	273(100.0)

주: 진로체험 유형은 교육부의 진로체험 매뉴얼 기준을 따랐지만, 일부 애매한 사례는 기타로 처리

표 2. 설문조사 개요

구 분	서울시 공공기관의 자유학기제 지원현황과 인식, 정책적 수요 파악
조사기간	2016년 5월 23일~6월 31일
조사대상	서울시 산하기관 및 투자·출연기관,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 자치구 진로직업 체험센터, 서울시 공공도서관 319개 중 105개 기관이 응답(회수율 32.9%)
주요내용	서울시 공공기관의 지원현황 및 자유학기제 인식과 대응실태 등

절반 이상의 기관에서 자유학기제를 알고 있지만, 실제 기여도는 낮다고 인식

- 자유학기제 활동 내용과 목적은 과반수 기관이 인지
 - 서울시 공공기관의 71.5%(‘매우 그렇다 + 그렇다’의 응답 비율)가 자유학기제 활동 내용을 인지
 - 자유학기제 도입 취지에 대한 이해는 66.7%로 서울시 공공기관이 자유학기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그러나 환경 제공 기여는 상대적으로 저조
 - 진로탐색 및 체험기회 제공 의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은 73.3%, 진로체험처 제공 의무 인식 비율도 70.9%로 다소 긍정적
 - 자유학기제를 위한 환경 제공에 이바지한다는 비율은 58.1%에 그쳐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하면 산하기관의 자유학기제 인식은 모든 문항에서 저조한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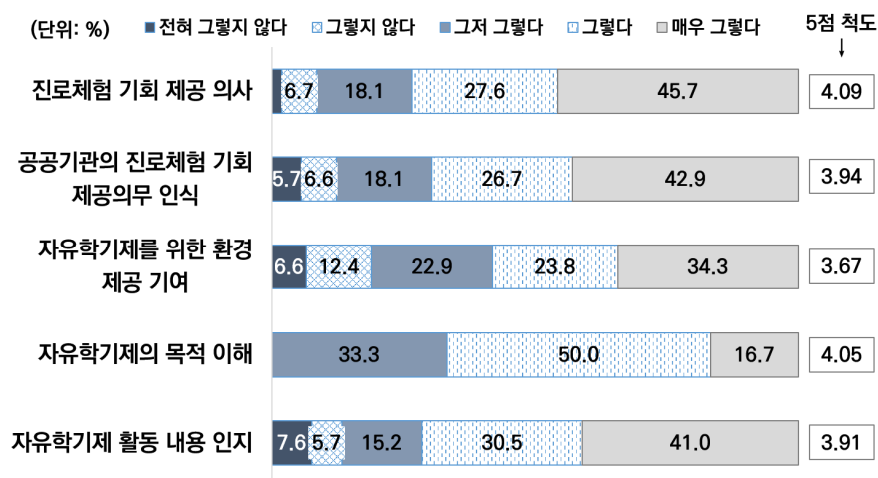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시 공공기관의 자유학기제 인식

진로체험처 제공기관의 실질적 지원은 미흡

- 공공기관은 자유학기제에 관심이 많지만, 기관별 편차가 크고 실질적 지원은 부족
- 과반의 기관이 ‘기관장의 자유학기제 관심’, ‘자유학기제 관련 회의나 논의’, ‘자유학기제 연간 지원계획 수립’, ‘기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시행하였다고 응답
- 그러나 예산, 인력, 자유학기제 관련 온라인정보시스템 활용, 네트워크 참여 비율은 상대적으로 저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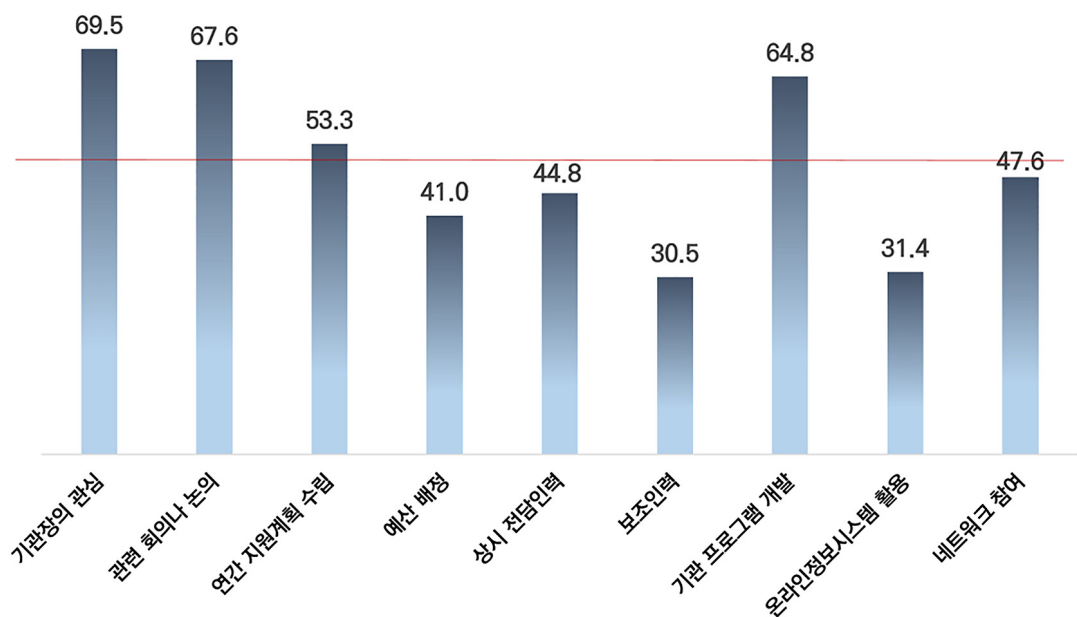


그림 6. 서울시 공공기관의 자유학기제 준비 정도

- 정부 추진정책에 부응이 학교와 연계하는 가장 주된 이유
- 정부 추진정책에 부응하여 학교와 연계하는 사례가 제일 많고, 후속 세대인 학생에게 기관을 알릴 수 있는 홍보 기회 창출 목적이 그다음
- 학교와 연계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적합한 프로그램과 인력의 부족을 제시
- 기관과 학교와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기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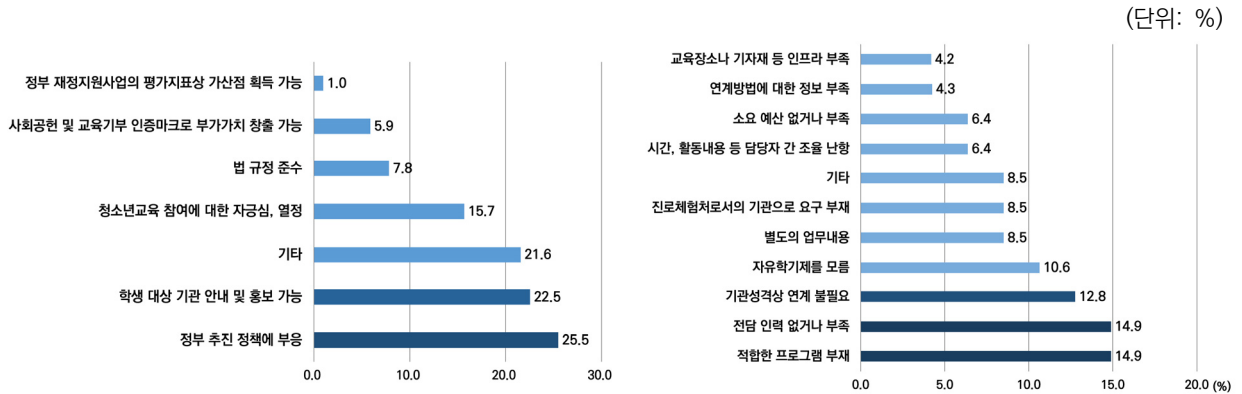


그림 7. 기관-학교와의 연계(좌), 미연계(우) 이유

- 자유학기제 연계의 개선사항으로 예산 확대 요구가 제일 커
- 단위학교의 자유학기제 예산은 평균 2천만 원으로, 강사 인건비, 교사 연수 등에 주로 사용되어 현장체험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매우 적다고 호소
- 제공처도 예산 제약 때문에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인력난은 프로그램 개발·업그레이드의 어려움과도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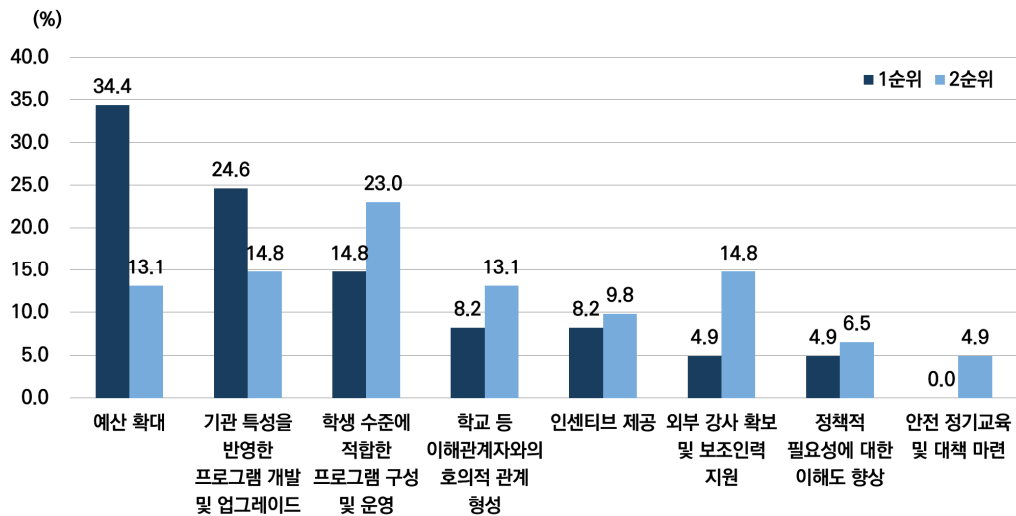


그림 8. 자유학기제 연계 개선사항(1·2순위)

-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사회 기관과의 학교 상황 공유’가 중요하고 시급
- ‘학교 상황에 대한 공유’, ‘전담 강사 등 인력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담당자 연수’, ‘체험처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의 순으로 중요도를 높게 평가
- 시급도는 ‘학교 상황에 대한 공유’, ‘전담 강사 등 인력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담당자 연수’ 등의 순으로 중요도와 유사
- 체험처는 운영 취지에 공감해 참여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없을 때가 많고, 학교 간 일정 조율과 참여 인원 조정에 대한 개선 요구가 다수
- 체험처(인)는 학생(청소년)과 학교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치거나 설명해본 경험이 거의 없기에 이에 대한 기본 교육과 연수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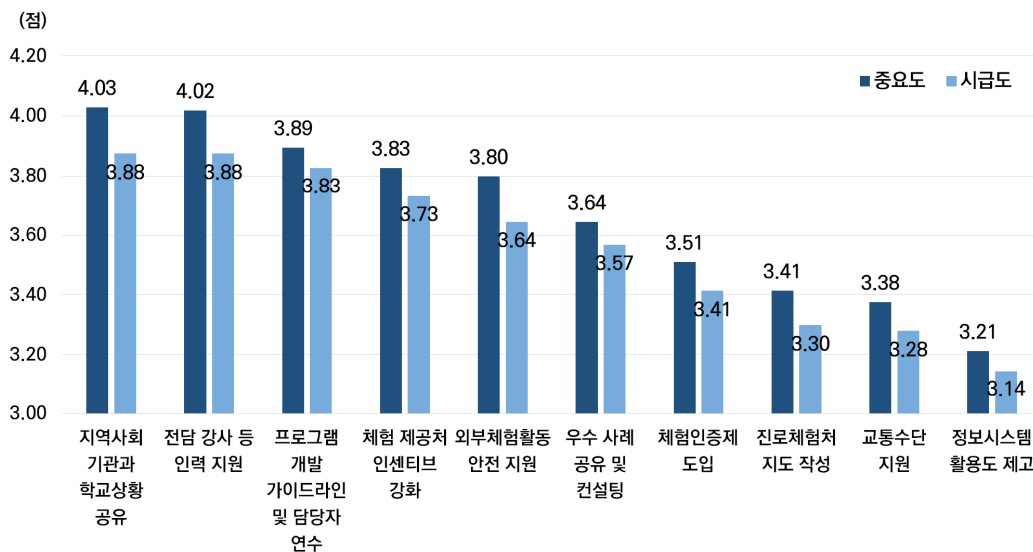


그림 9. 자유학기제 활성화 의견(중요도와 시급도 평균)

학생·관계자 모두 자유학기 활동이 진로탐색에 유의미 인식¹⁰⁾

학생은 새로운 경험과 흥미 발견으로 미래직업을 진지하게 탐색하는 계기 마련

- 재미와 흥미를 이어갈 수 있게 양질의 체험과 후속 활동의 보완이 필요
- 시험 없는 ‘노는 학기’,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막연히 ‘좋다’는 인식도 일부 존재
- 진로직업 탐색활동으로 재미와 흥미를 발견하는 계기 마련, 새로운 경험을 넘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직업을 재설계하고, 미래직업에 대한 더욱 진지한 탐색 추구
- 일회적 진로체험으로 양질의 체험에 대한 아쉬움, 자유학기 이후 대체로 후속 활동 부재, 일반학기로의 복귀 후 적응 어려움 등의 문제는 보완이 필요

교사와 교육기부자는 학생의 변화를 체감하지만, 현재 방식으로 확산이 어렵다는 인식이 다수

-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의 가능성은 충분
- 현장직업체험에 참여한 학생은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구체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변화를 경험하면서 보람과 재미를 느껴
- 자유학기제 활동을 접한 학부모도 시행 초기에 느낀 진학 불안감이 감소
- 교육기부자도 학생에게 도움을 주며 자부심과 보람을 느껴
- 학생들이 접하기 힘든 직업 세계의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금이나마 학생들의 진로 개척에 도움이 되고,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변화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껴
- 각 기관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참여하지만, 기관 간 모호한 역할 분담으로 진행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불만이나 회의감 등이 발생하여 현재 시스템으로는 지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

10)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 결과

Ⅳ. 서울시의 자유학기제 지원 전략

자유학기제 정착에는 서울시의 적극 지원이 필요

자유학기제는 서울시 교육청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

-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 4가지 전략이 필요
 - 진로체험지원체계의 구축으로 지역사회 기관과 학교 간의 연계를 강화
 - 다양하고 풍성한 진로체험을 확보하기 위한 진로체험의 질 관리
 -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진로체험처의 지원 강화
 - 원활한 학교 밖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진로체험의 안전 확보

주요 추진전략

주요 과제	추진전략
진로체험지원체계 구축	- 서울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 권역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지정 - 진로체험지원 조례 제정 - 진로체험지원 지역협의체 구성
진로체험 질 관리	-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 매뉴얼 제공 - 기관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원
진로체험처 지원	- 진로체험처 질 관리 강화 - 담당자 교육 및 연수 - 참여 기관 인센티브 부여 - 서울시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진로체험 안전 확보	- 안전 교육 강화 - 이동수단 지원

진로체험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역기관과 학교 간 연계를 강화

서울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권역별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지정·운영

- 광역 지원센터와 권역별 센터 설치
 - ‘(가칭)서울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기존 청소년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운영하는 방안 검토
 - 광역/권역별 진로체험처 발굴 및 관리, 서울시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 매뉴얼 제공 등의 역할 수행
 - 5대 생활권(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마다 권역 센터를 설치·운영
 - 기존의 자치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중 한 곳을 권역 센터로 공모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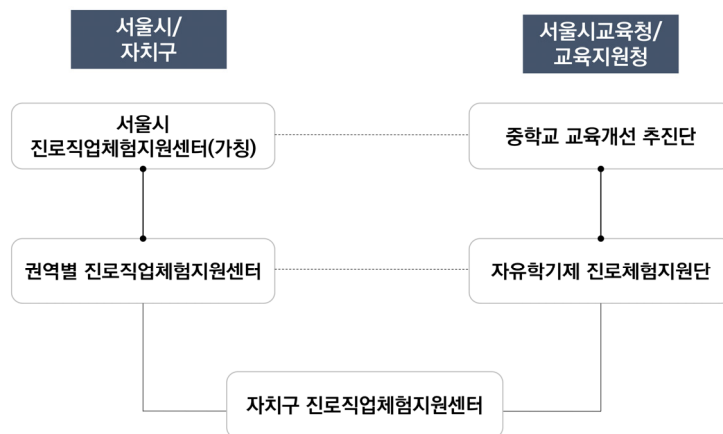


그림 10. 서울시 진로체험지원 체계도

‘(가칭)서울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보완

- 안정된 예산 확보로 진로직업체험 지원체계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속 지원
- 현장학습 관련 체험학습비 지원,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

진로체험기관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 진로체험활동 시기 조율, 학교와 체험처 간 순조로운 매칭 확보
- 학교와 지역기관의 원활한 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해 정기적인 협의 필요
- 자치구 단위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광역/권역 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 협력 구조 마련

진로체험의 질 관리로 다양하고 풍성한 진로체험을 담보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 매뉴얼의 제공으로 진로체험의 질 향상

- 단기 현장체험활동지원사업의 하나로 매뉴얼 개발·제공
-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담당자 연수’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교사 또한 진로체험처 연계 활동에서 프로그램의 질을 중시
- 각 기관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기관 성격과 교육부 진로탐색활동 유형을 참고하여 매뉴얼을 개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원으로 내실 있는 콘텐츠 제공

- 기관 성격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공모사업과 컨설팅 시행
- 일부 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기관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 호소
-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산하기관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활용한 진로체험처의 질 관리 강화

-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거점 역할을 강화
 - 현행 교육부의 ‘꿈길’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활용은 저조한 편
 - ※ 꿈길(<http://www.ggoomgil.go.kr>): 체험처와 체험 프로그램을 등록하여 학교와 체험 제공기관의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진로체험지원 전산시스템
 - 진로체험의 통합지원과 관리 등 거점 역할의 강화 필요

진로체험처 지원 등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진로체험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 부문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

- 교육 기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제공
 - 지역기관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현 구조로 진로체험처를 확대하기는 무리
 - 교육 기부에는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므로 지속 시행에 어려움
 - 지역사회의 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다양한 유·무형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서울시 공공기관의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서울시 산하기관의 참여를 독려

- 서울시 산하기관의 참여 증대를 위해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해야
 - 서울시도 투자·출연 기관의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할 것을 제안
(2017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자유학기제 지원’ 평가지표 포함)

담당자 교육과 연수로 사업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

- 기관장의 관심과 더불어 담당자의 자유학기제 운영 취지에 대한 공감 환기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 기관 실무자에게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연수와 교육을 제공

학교 밖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진로체험의 안전 확보

진로체험활동의 안전 지원 강화로 학교 밖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우려를 감소

- 학교안전공제회의 보험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가이드라인 마련
- 학교안전공제회의 보험은 학생의 학교 밖 체험활동에 적용되지만, 지원 범위나 내용이 한정적이어서 현장 안전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므로 학교안전공제회 보험의 지원 범위 확대를 제안
- 서울시는 청소년 지역사회 활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 범위를 정하여 안전한 진로체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례 내용에 포함

이동수단 제공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강화

- ‘학교 현장 체험학습 버스’ 운영 확대 시행
- 학생들이 서울시 전역에서 진로직업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수단을 확보
- 서부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인 현장체험활동 버스지원사업의 확대 운영을 제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www.si.re.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